

6-28-2009 주간 메시지

성서: 시편 32:1-11

본문: 출애굽기 20:13-17

제목: 십계명에 나타난 메시지(5)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대답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버렸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마 19:16-25).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 또한 간음자요 살인자인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신약시대에 와서 살인자인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고를 시작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에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증거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율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간헐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갈 2:16,3:22-24)

그렇다! 십계명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자신들은 감옥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 역시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 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고 한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1,22,27,28)

십계명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여 감옥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모든 사람들을 더 깊은 감옥으로 집어넣으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시험하였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떴다. 주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8:3-11)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모든 죄들이 들어 있음을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막 7:21-23)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계명들을 범하게 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이미 감옥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참음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의 법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롬 3:23-28)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육신에 모든 율법의 죄를 선고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롬 8:3-4).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율법을 초월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살인하며 간음하고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탐낼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전 2:16)고 증거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다. 또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자유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다(요 1:12). 이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자!

6-28-2009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32:1-11

Main scripture: Exodus 20:13-17

Subject: Message in Ten Commandments (4)
"Commandments for loving neighbor"

A rich young man came to Jesus and said unto him, Good Master, what good thing shall I do, that I may have eternal life? Jesus asked him to keep the commandments to enter into life. He asked him which? Jesus said, **"Thou shalt do no murder,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¹⁹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

He asked unto the Lord, All these things have I kept from my youth up: what lack I yet? Jesus said unto him,

"If thou wilt be perfect, go and sell that thou hast, and give to the poor, and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and follow me."

The rich young man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He lost the opportunity to be saved believing in the Lord Jesus (Matt. 19:16-25).

God called Moses, the murderer to use him as well as King David, murderer and adulterous man calling him a man having the heart of the LORD. In the New Testament age, God ordained Saul and changed his name as Paul to launch the world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postle Paul was the Pharisees of Pharisees, and he did best to keep the laws. But he testified later:

"¹⁶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²²But the scripture hath concluded all under sin, that the promise by faith of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em that believe. ²³But before faith came, we were kept under the law, shut up unto the faith which should afterwards be revealed. ²⁴Wherefore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Gal. 2:16, 3:22-24)

Yes! As the Ten Commandment declared to the world, all men were confined in the prison of sin. Jesus said unto the Pharisees that they also were in the prison of sin, even though they tried to keep the law:

"²¹Ye have heard that it was said of them of old time, Thou shalt not kill; and whosoever shall kill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²²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her without a cause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²⁷Ye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y them of old time,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²⁸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hath committed adultery with her already in his heart. "(Matt. 5:21,22,27,28)

Jesus put all men into the deeper prison judging them again as sinners. The scribes and Pharisees brought unto Jesus a woman taken in adultery; and tempted Jesus saying, **"⁵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sayest thou?"** Jesus asked them,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 And they which heard it, being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went out one by one, beginning at the eldest, even unto the last. Jesus not condemned her: and said unto her, Go, and sin no more (John 8:3-11)

Jesus taught Pharisees of sins in the heart of man:

"²¹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²²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asciviousness, an evil eye, blasphemy, pride, foolishness: ²³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 "(Mark 7:21-23)

In other word, he wanted them to understand that they already had committed sins in the heart for sins are therein, and they were already in the prison of sin being sentenced to death.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is very clearly:

"²³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²⁴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²⁵Whom God hath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to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the remission of sins that are past, through the forbearance of God; ²⁶To declare, I say, at this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him which believeth in Jesus. ²⁷Where is boasting then? It is excluded. By what law? of works? Nay: but by the law of faith. ²⁸Therefore we conclude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deeds of the law."(Rom. 3:23-28)

Jesus is the only one that kept the law perfectly. God condemned sin in the flesh of his Son, and crucified him so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Rom 8:3-4). They that believe on Christ Jesus to enter in him ar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to be in the law of Spirit of life in Christ. And now they are free. They are free to love God and neighbor beyond sin. In other word, they have the power of love through the Spirit beyond the law. So Jesus gave a new commandment unto his disciple who believed on him: **"³⁴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e also love one another. ³⁵By this shall all men know that ye are my disciples, if ye have love one to another. "(John 13:34-35)**

How they that love the neighbor can murder, and commit adultery, and steal, and covet the neighbor's house? Apostle Paul testified that we have the mind of Christ (1Cor. 2:16). After resurrection, Jesus met with his disciples, and said unto them breathing on them, **"Receive ye the Holy Ghost."** And he said unto them, Whose soever sins ye remit, they are remitted unto them; and whose soever sins ye retain, they are retained. Yes! Whosoever believes on the gospel of Christ to receive the Holy Ghost are true free men. They also have the power to free men through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the gospel, and the Spirit; this is the very power of the children of God (John 1:12). Let us glorify the Father God using this power!